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0호 현대불교
2008년 7월 30일(음력 6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으세요

서로 한마음이 돼서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밝고 신심이 돈독한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뉴욕, 산호세, 시카고, L.A. 등지를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마음공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미국 분들도 많고 한국 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불법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가 쇠퇴하던 시절에 기복으로 편입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복으로 따르고 그렇게 믿고 가게 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란 한국적 특징을 살려서 지금 현시점에 맞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니 우리가 마음을 계발해서 내 몸이나 내 가정, 사회나 국가, 세계적으로 모든 걸 조화롭고 화목하게 돌릴 수 있는 원심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르다면 나중에 질문도 아니고 또 너무 다행도 좋습니다. 그럼 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 몸이 육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육성 속에 별성이 수십억 마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근원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이 창조가 되고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참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됐어도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부처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간대서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서 우주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주도 있다는 걸 아는 그 시점으로부터 벌어집니다. 즉, 바로 자기 마음에 우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한생각에 수억 마리의 분신을 만들 수도 있고 분신을 없앨 수도 있고, 악을 만들 수도 있고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스런 무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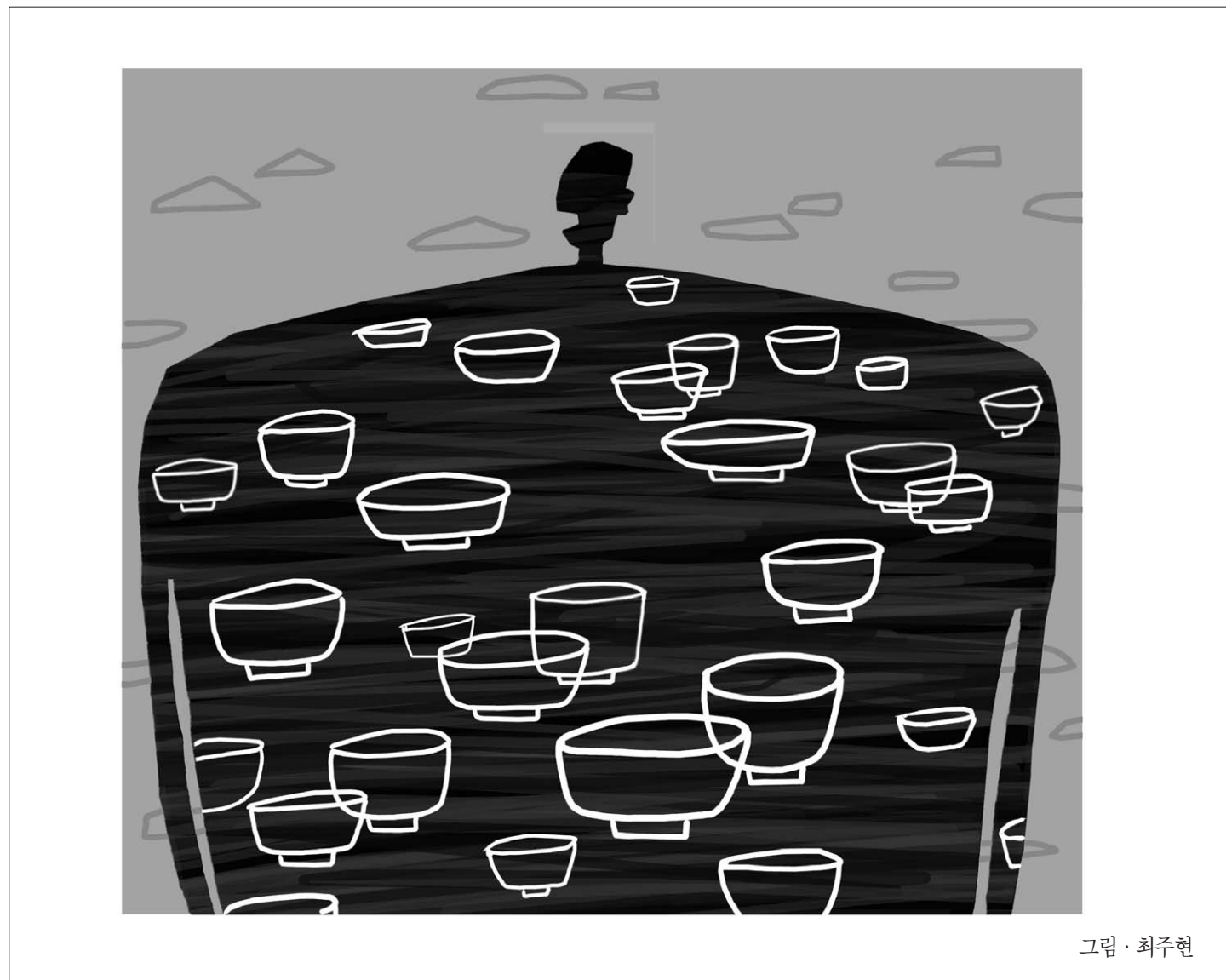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는지를 애꿎니다.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주인공의 안테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본래자성불 자체의 안테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각 낼 수 있는 법신, 그리고 움직여지는 화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로서 회전하면서 자기가 바로 안내인처럼 또 선장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기 몸통이 아닙니다. 웬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통이 속의 간세포만 하더라도 수십억 마리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통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집입니까? 그것이 내 몸이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어떻게 나만 됩니까? 수십억 마리가 같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당신을 선장으로 뽑아 놓았으니 당신 마음 한번 잘 먹어서 우리들을 잘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도 성불하고 우리도 각(覺)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이 미생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각자 자기의 선장한테 기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장이 코치를 잘못하는 길잡이가 된다면 그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소멸되고 악으로 떨어지고 죽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만, 어떠한 장소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고 있는 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즉 말하자면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사생이 사는 데는 다 불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밥을 해다 놓고 빌고 타에서 구하고, 이러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사생이 다 생명이 있으니 바로 '불(佛)'인 것이고, 그것이 생각을 하고 움직여지는 '법(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살

아나가는 그 생활이 불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법을 잘못 알고 계신다면 바로 귀신, 미신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여먹고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된 것도 아니요, 호화롭게 남이 가져오는 거 먹고 살 양으로 스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스님 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마 그 실천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실 겁니다.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한데 합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자!" 이러겠지마는 평소에 스님들은 배가 부르면 마음이 해태해지고, 또 기름진 쌀밥을 먹고 배가 불러도 남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서 일종식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본래 내 몸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하루에 먹는 것이 보리밥 한 공기도 안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 우주간 법계에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내 행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 보지 않는 데서 무슨 일을 하고서는 아무런 한 획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전체통신기 있잖아요? 무선기. 무전통신기가 벌써 모든 법계를 씩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한 치라도 우연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럴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신통이 한마음의 안테나에 붙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축이 있음으로써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축이 있다는 것예요. 축은 본래 자기 자성불이요, 움직여지지 않고 돌고 낸다 이겁니다. 움직여지지 않는 자성불을 중심으로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입니다. 그러니 그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하늘을 받치는 안테나 기둥이 서야 모든 일체, 삼천대천세계에서 일체 만물만 생이 서로 살아가면서 전달하는 그 이치가 자기 안테나에 잡히거든요.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가 막혀요. 나한테서 지혜가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본래 연결이

26면으로 계속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추, 초,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부천역 3층 이마트 앞 북부역쪽 300m 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15-5575
휴대폰: 011)288-2944

현대 결혼연구원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우물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리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전자식 2종문 3중경보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텅만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